

광주 썩스러운 시즌 첫 승



대전 꺾고 13경기만에 1승

프로축구 광주상무가 올 시즌 정규리그 첫 승리를 신고했다.

광주는 지난 16일 보성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전 시티즌과의 경기에서 전반 25분 남궁도의 페널티킥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14개 팀 중 유일하게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승리가 없었던 광주는 4무8패 뒤 첫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것.

또 부산 원정을 떠난 전남 드래곤즈도 전반 39분 부산 아이파크의 북한 대표 출신 미드필더 안영학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20분 산드로가 동점골을 만든 뒤 주광운이 후반 30분과 44분 연속골을 터뜨려 3-1로 역전승을 올렸다.

전북 현대는 제주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전반 11분 제갈로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은 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리네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4분 뒤 다시 제갈로가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2-1로 이겼다.

인천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서울이 2골씩을 주고받으며 2-2 무승부를 기록했고,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는 0-0으로 비겼고, 수원 삼성은 난타전 끝에 경남 FC를 5-3으로 제압하고 2위 자리를 지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브라질에 0-2 완패 8개국 국제청소년축구

한국이 8개국 국제청소년(U-17) 축구대회 개막전에서 브라질에 완패했다. 박경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6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브라질과 대회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전반 31분 파비우 페헤이라 다 시우바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뒤 후반 34분 마이클 마르케스 비네펠코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0-2로 무릎을 꿇었다.

이 대회는 8-9월 국내 8개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청소년(U-17)월드컵을 앞두고 프레대회 성격으로 마련된 대회.

한국은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문전 불처리 미숙과 골 결정력 부족을 드러낸 반면 브라질은 두차례의 찬스를 모두 골로 연결해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가나가 공격수 오세이 랜스포드의 헤트트릭에 힘입어 아이티를 3-0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방한 도중 중간기착지인 미국 뉴욕 공항에서 선수 13명의 집단 이탈로 이날 오전 뒤늦게 입국한 아이티는 장기간 비행으로 인한 여독을 제대로 풀지 못했는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주말 LG전 3연패 허덕



KIA가 잠실벌서 LG에 3연패의 수모를 당했다.

끝까지 KIA는 17일 잠실서 열린 2007 삼성PAVV 프로야구 LG전서 3-1로 패하며 주말 LG 3연전을 모두 패배로 마감했다. 선발 윤석민은 7이닝 동안 9피안타 1볼넷, 5탈삼진, 3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팀 타선의 침묵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시즌 9패째(4승).

초반 실점이 아쉬웠다.

윤석민은 1회 선두타자 이대형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한 뒤 이종렬에게 적시 2루타를 헌납하며 첫 실점했다. 계속된 1사 3루 위기에서 최동수에게 적시타를 내주며 추가 실점한 윤석민은 2회에도 야수 실책으로 이대형을 내보낸 뒤 이경수에게 중전안타를 내주며 1점을 헌납했다.

윤석민은 다행히 3회부터 안정감을 되찾았으나, 팀 타선의 침묵 행진은 계속됐다. KIA 타선은 4, 5회 득점찬스를 병살타로 마감했고, 6회 2사 만루 찬스로 대타 이재주의 내야 플라이로 허무하게 날렸다. 7회에 상대 구원투수 심수창에게 볼넷과 폭투, 땅볼 등을 묶어 1점을 뽑아내 '영봉패'의 수모만 겨우 면했다.

한편 KIA는 지난 16일 LG전서도 2-4로 패했다. KIA는 0-4로 뒤진 6회 밀어내기 볼넷과 희생플라이로 2점을 따라 붙었지만, LG 계투진에 막혀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지에 역전극... 시즌 3승 최단기간 상금 6억 돌파

17일 경기도 용인 88골프장에서 열린 MBC 투어 비씨카드 클래식 마지막 라운드 18번홀에서 신지에가 우승을 확정지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KLPGA 비씨카드클래식 최종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새로운 '지존' 신지에(19·하이마트)가 또 역전극을 펼치며 시즌 세번째 우승컵에 입맞쳤다.

신지에의 17일 경기도 용인의 88골프장(파72·6천133야드)에서 열린 MBC투어 비씨카드클래식 마지막 3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때려 내며 최종 합계 12언더파 204타로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은 신지에의 한국여자프로골프 사상 최단 기간인 1년7개월16일만에 통산 상금 6억원을 돌파한 선수가 됐다. 종전 기록은 정일미가 2001년 세웠던 6년4개월17일이었다.

우지연(20·하이마트)도 후반에만 6타를 줄이는 등 5언더파 67타의 맹타를 휘둘러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스코어 카드에 적어내 최나연(21·SK텔레콤)을 1타차 3위로 밀어내고 2위에 올랐다.

중반까지는 시즌 3승을 노리는 신지에와 시즌 첫 승에 목마른 최나연의 접전으로 전개됐다.

먼저 우승컵에 한발짝 다가선 것은 '역전의 명수' 신지에였다. 선두 최나연에 2타 뒤진 채 출발한 신지에의 2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고 4번홀(파5)에서 최나연이 보기를 범한 사이 파퍼트를 성공시켜 동타를 만들었다.

8번홀에서 다시 1타를 줄여 1타차 단독 선두가 된 신지에의 그러나 여러차례

찾아온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불안한 1위 자리를 지켰다.

더욱이 같은 조의 우지연도 후반들어 맹타를 휘두르며 추격을 시작, 17번홀(파4)에서 버디퍼트를 떨구며 1타차로 좁혀 왔다.

하지만 신지에의 역시 승부사였다. 우지연의 17번홀 버디 퍼트를 지켜봤던 신지에의 같이 버디로 응수하며 최나연과 우지연에 다시 2타차로 앞서는 순간 한 손을 볼끈 쥐며 승리를 예상했다.

신지에의 18번홀(파5)에서 세번째 샷을 핀 옆 2m에 붙인 뒤 버디로 마무리를 하려 했으나 불이 흠을 빚겨나가 아쉬움을 남겼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동신대 박성국 아쉬운 준우승

KPGA 몽베르오픈 최종

무명 배성철(27·테일러메이드)이 프로 5년 만에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아 투어 에이스지축은행 몽베르오픈에서 우승했고, 동신대학교 1학년으로 '10대 반란'이 예상됐던 박성국(19·테일러메이드)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배성철은 17일 경기도 포천 몽베르골프장(파72·7천199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4라운드에서 2타차 선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7언더파 281타를 쳐 박성국(19·테일러메이드), 임형수(43)와 동타를 기록한 뒤 박성국과 맞대결로 좁혀진 연장 네번째 홀에서 버디 퍼트를 떨구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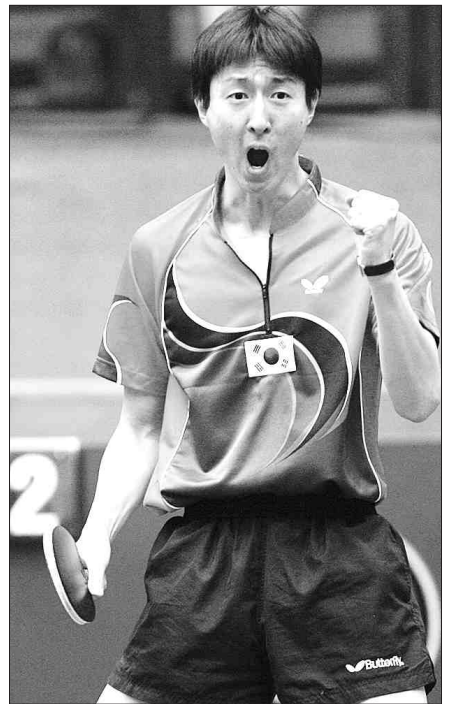
2002년 프로에 입문했으나 우승은 커

녕 '톱 10' 진입도 두 번 밖에 없던 배성철은 지난해 말 공익근무를 마치고 올해부터 다시 투어에 전념하기 시작한 선수.

대기 순번을 받고 출전한 박성국은 2라운드에서 코스 레코드(8언더파 64타)를 세우는 등 10대 돌풍을 일으켰고 프로 선수 최연소 우승까지 도전했지만 연장 승부의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일본과 장익제(34·하이마트)는 6언더파 282타를 쳐 이호승(21·투어스테이지)과 공동 4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상은 정상 탈환

프리모락 꺾고 2년만에 우승 코리아오픈 탁구 남자 단식

한국 남자탁구 대표팀 '말형' 오상은(KT & G·시진)이 2007년 코리아오픈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세계랭킹 6위 오상은은 17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크로아티아의 즐란 프리모락(세계 28위)에 4-2(8-11 11-8 11-7 11-13 12-10 11-8)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이로써 2005년 대회 때 유승민(삼성생명, 세계 7위)과 준결승 대결을 승리로 장식하며 우승했던 오상은은 2년 만에 코리아오픈 왕좌를 되찾았다.

세트 스코어 2-2 균형을 허용한 오상은은 5세트가 승부처였다.

오상은은 소극적인 플레이에다 리시브 불안까지 겹쳐 빠른 공세를 펼친 프리모락에게 4-10, 매치 포인트까지 물렸다.

그러나 오상은이 대반격을 시작했다. 오상은은 강한 포어핸드 드라이브로 프리모락의 허점을 파고 들었고 연속 6점을 쓸어담는 놀라운 공격으로 승부를 듀스로 몰고간 뒤 내리 두 점을 따내 승리를 거뒀다.



18일(월)

- ▲메이저리그(뉴욕M-뉴욕Y)(08 : 55·X-ports)
- ▲제14회 무등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결승전(13 : 00·KBSN Sports)
- ▲전국대학배구 하계대회(성균관대-홍익대) (인하대-조선대)(13 : 50·SBS스포츠)
- ▲8개국 U-17 국제청소년 축구대회(한국-아이티)(18 : 50·SBS스포츠)

로템갤러리 직수입 안티크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가구의 **格**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각종 고급 침대

직수입 안티크 전문매장 · 침대 · 식탁 · 소파 · 소품 · 침구 · 거울 T. 653-4022

●진열상품 30%~최고70% ●특별기획상품행사

소파, 식탁, 침대, 거울, 소품

찾아오시는 길: 1기동병원 - 백운동 - 남광주 - 삼성디지털프라자 - 현대자동차 - 미래아파트 - 로템갤러리

대표전화: (062) 653-4022

물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

KARCHER 독일가치 특별기획전

... 적외선 감지 지능형 로봇청소기

이제 청소는 **카처 로보크리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웁니다. (충전시간:10분 1시간사용, 타사제품:1시간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 밑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입력, 회차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재가동, 문턱통과, 추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개사 제품)

카처는 수십년간 크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70개국 우수디자인상 수상

Hit RC 3000 로봇청소기, K 55 전기빗자루, VR 6100 전공청소기, SC 952 소형 스팀청소기, SC 1122 디럭스 스팀청소기, SC 1602 디럭스 스팀청소기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 시/군 대리점 모집중